

잊지 못할 파키스탄 가이드

KBS 
손은혜 기자



파키스탄 취재 일정을 동행해준 나의 파키스탄인 코디, 사히드 씨입니다.

“그분은 지금 잘 살고 있나.” 취재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명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기에 입력된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둘 늘어갈수록 공허함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길 가다 문득,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을까’ 생각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몇몇 사람은 떠올리기만 해도 빙그레 저절로 웃음이 나고, 또 반대로 몇몇 사람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사람은 아무래도 제게 웃음과 눈물을 함께 준 사람들입니다. 제게는 그런 사람이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파키스탄 가는 길

2012년, 저는 ‘특파원 현장보고’라는 국제뉴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 아이템을 기획하던 중에 가장 열심히 기획했던 아이템은 단언컨대 파키스탄과 관련된 아이템이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여러 테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테러는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자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에서는 여자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

문에, 학교 다니는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테러를 하는 것이었죠. 외신 기사를 통해 해당 뉴스를 접하고, 유튜브 동영상도 찾아본 뒤, 꼭 이 뉴스를 직접 취재해봐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곳은 파키스탄 북서쪽 끝, 무장 이슬람 세력들이 가장 강하다는 스왓밸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 여기 가자.’ 이렇게 마음먹고, 파키스탄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더 기획했습니다. 머나먼 파키스탄까지 가는데, 15분짜리 다큐멘터리 하나만 만들어 올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 정도는 더 만들어 와야지.’ 열심히 아이템을 찾아봤더니 파키스탄에는 세계 최장수 어르신인 사는 혼자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100세가 넘는 어르신이 많이 사는데, 이 마을이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극한의 테러 공포, 그 반대편에는 평화와 장수로 유명한 마을이 한 나라에 공존한다는 것이 참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곳도 취재하자.’ 혼자 마을은 파키스탄의 북동쪽 끝, 외딴 산간지역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북동쪽 끝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미처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파키스탄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성사된 그와의 만남

방송사들이 해외 취재를 나가려면 통상 현지 코디들을 통해 인터뷰도 섭외하고, 통역이나 차량도 부탁합니다. 하지만 제 아이템을 얘기하니, 파키스탄 현지에서 저를 도와주겠다는 한국인 코디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뜰이나 한국인이 적은 파키스탄인데, 취재하려던 아이템이 테러가 난 지역을 찾는 것이라고 하니, 누가 선뜻 동행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미 발제한 아이템을 접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구글을 통해서 겨우 검색해서 찾아낸 외국인 코디네이터들에게도 메일을 보내보고, 현지 선교사들에게도 연락을 취해보고, 여러 노력으로 수소문한 끝에, 드디어 제 취재에 동행해주겠다는 가이드를 구했습니다. 이름은 샤히드. 파키스탄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베테랑 여행 가이드였습니다. 진짜 내 취재 일정에 동의한 것이 맞는지, 가기 전에 몇 번이나 확인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 답은 매번 꽤나 늦게 왔지만, 분명히 그는 ‘no problem, ok’ 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왓밸리에서 혼자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했더니 파키스탄에서는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면서, 자신만

믿으라고, 차로 16시간만 달리면 금방(!!!) 갈 수 있다고, 차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권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고 파키스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강렬했다

드디어 파키스탄에 도착. 그는 제 몸집의 두 배는 되어 보이는 거구였습니다. 키가 190에 가까웠고, 배도 볼록 나와 있었죠. 처음 만난 제게 불쑥 손을 내밀면서, “환영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온 걸 환영한다”고 외쳤습니다. 테러 지역에 취재를 가려면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현지 옷을 입는 것이 좋겠다면서, 제게 현지 옷을 하나 사러 가자며 취재 첫날 재래시장으로 인도했습니다. 파키스탄 전통 여성 의상을 하나 사고, 히잡도 하나 사게 하면서, 보수적인 지역에 가면 반드시 히잡을 써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옷 하나 사 들고 그를 따라 스왓밸리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호기롭게 떠난 취재길인데, 그는 얼마나 긴장하던지요. 국경 근처, 스왓밸리 지역에 가까이 가자, 그는 정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기에 군인이 많다. 테러 세력도 많다. 우리가 하는 취재를 알면 우리를 잡아갈지도 모른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카

메라는 무조건 작은 것을 써라.” 잔소리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겨우 겨우 스왓밸리 지역에 도착해서 저는 테러 위험 속에서도 쫓쫓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예쁜 소녀를 섭외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편견과 달리 매우 친절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거부감도 별로 없어서, 들어가는 곳마다 제게 차도 한잔씩 주고, 인터뷰를 해도 되냐는 제 부탁에도 흔쾌히 동의해줬습니다. 인터뷰 사례비를 건네주는 손길에도 몇 번씩이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제가 부탁하는 장면들은 거의 다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소녀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학교에도 가고, 학교 안에

제가 취재했던 파키스탄 소녀입니다. 영리하고 밝고 착한 소녀였습니다. “테러 위험이 있어도 학교에 가겠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했습니다.



들어가서 수업하는 장면도 촬영하고,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지키는 군인들의 모습도 몰래몰래 촬영하는 동안 저는 어느새 긴장을 풀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소녀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에 섞여서 배불리 맛있는 음식도 먹고 생전 취본 적 없는 특이한 이슬람식 춤도 따라 취보며 즐겁게 취재를 마쳤습니다. 샤히드도 그런 제 모습에 긴장을 푸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스왓밸리에서의 취재를 무사히 마치고 혼자서 향했습니다.

취재가 끝나고 나면 현지 음식을 한 상씩 대접받곤 했습니다.



열여섯 시간의 거짓말, 그리고 그보다 더한 충격

그는 분명히 비행기보다 육로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여섯 시간을 허름한 봉고차 안에서 이동하는 것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파키스탄, 길은 가도 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라고 부르는 파키스탄의 이 도로는 산맥 사이로 뚫린 도로였습니다. 바로 옆은 낭떠러지. 아슬아슬하게,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다 보면, 앞에서 산사태가 나서 길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만난 파키스탄 아이들. 산사태가 나서 길이 막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현지인들은 느긋하기만 했습니다. 아이들도 돌이 치워질 때까지 몇 시간이고 이렇게 길 주변에서 잘 놀고 있었습니다.

이 몇 시간씩 막히기 일쑤였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어 길 사이에 갇히기를 여러 번. 우리나라의 포장된 고속도로를 생각하면 오산이었는데, 이 길을 금방! 도착한다고 표현한 샤히드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길을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스왓밸리에서 혼자까지 가는 데는 꼬박 1박 2일이 걸렸습니다. 갔다가 산사태에 막혀 갔던 길을 되돌아오기도 몇 번 했습니다. 몸살에 시달려가며 절대로 닿을 것 같지 않았던 혼자서 겨우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기는 했는데 저희 취재진에게는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샤히드를 통해 파키스탄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의 요지는 외국인

취재진과 당신이 의심스러운 취재를 하고 있으니, 당장 와서 당국의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취재진과 샤히드는 모두 패닉에 빠졌습니다. 혼자 도착한 그날 밤, 샤히드는 울먹거리며 촬영기자 선배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너희는 가더라도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일을 모두 잃고 감옥에 갈 것이다, 사실 너희들도 너희 나라에 못 돌아갈 수도 있다. 덩치 큰 샤히드는 울먹거리고, 체력도 정신력도 바닥이 된 저도 갈피를 잡지 못하겠고, 촬영기자 선배도 더더욱 마참가지였습니다. 샤히드에게 미안하고, 동료에게 미안하고, 이러다 정말 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웠습니다. 2박 3일 혼자에 있는 동안 저희는 궁리하고 또 궁리했습니다.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가서 경찰들을 만나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하고, 취재했던 촬영분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뽕뽕 숨기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어지러운데 혼자 지역 어르신들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세상사 걱정이라고는 없는 모습으로 저희 취재에 협조해줬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아야지.” 100세가 넘는 혼자 할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훈자 마을 어른신들입니다.



훈자 마을 다큐멘터리의 주인공, 106세 할아버지입니다. 훈자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할아버지의 모습이 하도 인상적여서 사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파키스탄 경찰국에서의 인터뷰, 그리고 헤어짐

그렇게 잔뜩 겁을 먹고 파키스탄의 수도에 도착해서 경찰국에 들어섰습니다. 이 길로 한국에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웬걸. 예상보다 경찰국 사람들의 태도는 예의 발랐습니다. 뭘 취재했는지 묻고, 취재했던 파일들도 살펴보더니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뭘 그리 겁을 먹었나 싶었습니다.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의 아이들을 취재한 것이 이슬람을 크게 욕보이거나 한 취재는 아닌데 괜히 너무 긴장을 했었구나. 그렇게 1시간가량 이런저런 인터뷰를 한 후, 당국 관계자는 선심 쓰

듯 저희를 놓아주었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방송 부탁한다고 악수까지 청하면서요. 그렇게 파키스탄 경찰국을 나서면서, 샤히드는 정말 멋쩍어했습니다. “내가 너무 겁을 먹었나봐. 미안해.” 그가 얼마나 걱정하고 눈물까지 보이면서 긴장했는지 알았기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공항까지 우리를 배려해주면서 샤히드는 내내 참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취재를 잊지 못할 거라고, 한국에 가서도 평생 잘 살라고 축복 인사도 해줬습니다.

잘 살고 있을까

그를 만난 지 벌써 7년. 간혹 그를 생

각하면 피식 웃음부터 납니다. 그 시절의 나는 왜 굳이 파키스탄에 가서 그 취재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걸까. 외국인 관광객 가이드를 하던 그는 한국이라는 머나먼 나라에서 온 취재진을 만나 생전 해본 적 없는 뉴스 프로그램 코드를 하면서 얼마나 겁을 먹었던 걸까. 그와 함께 취재했던 스왓밸리 지역의 소녀는 잘 살고 있을까. 훈자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건강하실까. 생각해보면 문뜩문뜩 그립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난 뒤에 그가 저를 어떻게 찾았는지 친구 신청을 보냈을 때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다른 평범한 외국인들의 여행 가이드를 하며 지금도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이 팍팍하고 건조해지면 간혹 그와 함께 파키스탄 취재 길에 올랐던 기억을 떠올려봅니다. 제가 다시 파키스탄에 취재를 하러 간다고 하면, 그는 뭐라 할까 문뜩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할까, 이제는 더 잘 안내해줄 수 있다고 할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경 끝에서 끝을 내달리던 그 길을 생각해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길도 언젠가는 끝났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도 언젠가는 끝이 보이는, 유한한 것들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소녀 생각도 납니다. 반짝반짝한 눈으로 자기는 커서 꼭 군인이 돼서 이 나라를 지킬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 소녀는 꿈을 이루었을까요. 지구 건너편에, 내가 아는 사람,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면 참 재밌습니다. 기자로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인연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분들 가운데 몇몇만이라도 삶의 어느 한 귀퉁이에서 저라는 작은 기사를 떠올리며 한번쯤은 빙그레 웃음 지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든 아니면 지구 건너편에서든, 어디에서든지요. 🇵🇰